



유로존, 2013년 0.1% 성장 전망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유럽연합 집행위원회(EC)는 재정위기 지속으로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2012년 -0.4%, 2013년 0.1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.
 - 2012~2013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종전(5월) 전망치 -0.3%, 1.0% 보다 각각 0.1%p 0.9%p 하락함.
 - EC의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2년의 경우 IMF와 같았으나 2013년의 경우 IMF 보다 0.1%p 낮음.
- 2013년 유로존 경제의 경우 지역별로는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서유럽권 실물경제 악화가 주목됨.
 - 2013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보다 크게 하락한 것은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의 저조한 성장 전망에 기인함.
 - 독일, 프랑스, 네덜란드, 오스트리아, 핀란드의 2013년 경제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보다 각각 0.9%p, 0.9%p, 0.4%p, 0.8%p, 0.8% 하락한 0.8%, 0.4%, 0.3%, 0.9%, 0.8%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.
- 부문별로는 극심한 내수 부진, 고용여건 악화, 정부부채 악화가 201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.
 - 소비와 투자는 전년대비 0.0%, 0.1% 증가하며, 실업률은 2012년 보다 0.4%p 상승한 10.9%가 예상됨.
 - GDP 대비 재정적자는 각국의 재정긴축 노력으로 2012년 -3.6%보다 소폭 상승하여 -3.2%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, GDP 대비 정부부채는 전년대비 1.7%p 상승한 88.5%가 될 것으로 보임.
 - 다만, 견조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유로존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할 것으로 보임.
 - GDP 대비 경상수지의 경우 2012년 -0.2% 보다 0.6%p 상승한 0.4%가 예상됨.

- 전문가들은 2013년 유로존 경제는 전반적으로 장기 경제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¹⁾에 가까운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유럽과 북유럽 간의 경제 격차 확대에 따라 불거진 갈등 국면은 다소 수그러질 것으로 분석함.

(EC 11/7, Bloomberg, 11/8)

1) 장기 경기 침체, 보통 1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2~3%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의미함.